

18세기 제주문인 정체성의 일단*

: 장한철 『표해록(漂海錄)』의 경우

정환국**

1. 프롤로그: 제주 고전문학 연구의 시좌
2. 18세기 제주문인 장한철(張漢喆)과 『표해록(漂海錄)』
3. 장한철의 표류 체험에 구현된 제주/제주인과 외부세계
4. 제주지식인으로서의 면모와 그 정체성의 일단

Ⅰ 국문초록

이 글은 장한철의 『표해록』 분석을 통해서 18세기 제주 문인의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제주 고전문학은 한국고전문학에서 독특한 위상으로 차지하고 있지만, 대개 육지 중심의 시선으로 타자화된 이미지가 강하다. 이런 경향은 제주 고전문학에 대한 온전한 접근이 못 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제주 출신 문인이 남긴 기록을 통해 그들의 의식세계를 확인함으로써 내부의 의식과 시선에 주목해 봐야 한다. 이

* 본 연구는 2020년도 동국대학교 전략연구단지원사업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S-2020-G0001-00046)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 junghk1114@hanmail.net

연구는 그 일환으로 장한철의 『표해록』을 분석하였다. 그동안 『표해록』은 표류문학으로써 주목되어 왔지만, 여타 표해록류와는 달리 작자의 내면과 외부세계에 대한 대응의 면모가 흥미롭게 구현된 저작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먼저 장한철의 생애와 함께, 『표해록』이 중앙 정계 등에서 읽힌 정황을 토대로 이 저작이 제주 문인의 역량을 드러내는 자료로 활용된 지점을 포착하였다. 다음으로, 『표해록』의 내용 중 선상 갈등과 외부세계와의 접촉 및 대응 등을 중요한 면모로 보고 그 양상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표류하는 배 안에서의 동선인들과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거쳐 장한철이 제주인, 또는 뱃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해적선 및 상선과 조우하면서 외부세계와 본격적으로 접촉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유가지식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그 대응 과정에 투영시키고 있는 점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헌과 지도 등을 활용하여 제주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점을 특정, 이것이 일반/육지 지식인의 지적 역량과는 다른 제주 문인만의 한 경향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표해록』은 18세기 제주 문인의 자기정체성이 잘 드러난 저작이며, 이를 통해 제주 고전문학의 한 특징을 상정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장한철(張漢喆), 『표해록(漂海錄)』, 표류체험, 제주와 제주인, 제주문인, 정체성

1. 프롤로그: 제주 고전문학 연구의 시좌

인조 효종 연간의 제주인 김복수(金福壽)는 안남에 표착했다가 일본을 거쳐 생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제주도의 대표적인 민요 가운데 하나인 <오돌또기>는 그가 베트남에 두고 온 아내를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로 지금

껏 전승되고 있다. 그에 관한 전승담에는 표류와 생환, 그리고 회한의 정서가 깊게 배어 있어서 과거 제주인의 현실을 응축한 사례로 손색이 없다.¹⁾ 한편 18세기 말 목만중(睦萬中, 1723~1810)은 「김복수전(金福壽傳)」을 남겼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주에서 전승되는 양상과는 판이하다. 표류인 김복수를 베트남을 교화시키고 서학을 배척한, 다시 말해 조선유교를 해외에 이식시킨 주체로 추켜올렸다. 그 시선은 저 바다 밖 변방의 표류자가 조선 유교의 침범 역할을 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필자는 이 사례를 두고 김복수에게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혀 실상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씌운바 있다.²⁾ 요컨대 제주에서 전승되는 김복수와 육지인, 특히 조선후기 사대부의 시선에 포착된 김복수는 아예 다른 존재였다.

물론 한 인물이 후대에 다양한 버전으로 해석되는 점 자체는 흥미로운 사안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상을 벗어나 과도한 방향으로 변용되는 것은 문제다. 특정한 방향으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목만중이 김복수를 입전한 과정을 보면 다소 환기할 점도 없지 않다. 작품의 끝에 붙인 사평(史評)에, 처음 제주 출신의 장령 변경우(邊景祐, 1745~1836)가 김복수 이야기를 강준흠(姜浚欽, 1768~1833)에게 들려주어 이를 강준흠이 기(記)로 남겼으며, 목만중은 이 기문에 의거하여 다시 입전했다는 정보가 들어 있다.³⁾ 목만중과 강준흠은 동파(同派)로 서학을 배척하는 공서파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미 강준흠의 기문에서 어느 정도 변형된 김복수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⁴⁾

1) 이에 대해서는 진성기 편저, 『남국의 전설』(『오돌또기와 김복수』, 일지사, 1968, 252~255쪽. 1956년 채록)과 이석범, 『제주전설집2』(『오돌또기』, 제주문화원, 2012, 269~277쪽) 등 참조.

2) 정환국, 「조작되는 하위/하위주체들-횡재 소재 표류서사의 변이양상과 하위주체의 성격」, 『민족문화사연구』 68호, 민족문화사학회, 2018, 152~156쪽.

3) 목만중, 「金福壽傳」(『餘窩集』 권16). “野史氏曰(중략) 姜君浚欽, 得其事於耽羅人掌令邊景祐, 記以示余, 余讀之而歎曰(중략) 遂就而略刪爲傳.” 참고로 이 점은 안대희, 「여와 목만중의 표류인 전기 「김복수전」 연구」(『한국문화』 37집,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4)에서도 언급된바 있다.

4) 현재 이 記文은 따로 남아 있지 않아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처음 변경우가 강준흠에게 김복수 사적을 어떻게 들려주었을 까 궁금해진다. 참고로 실록에 의하면, 변경우는 1793년 장령에 제수되었고 같은 해에 제주 백성의 고충과 폐단을 진언하는가 하면, 1795년에는 제주에 사창(社倉)을 설치하여 구휼할 것을 청하는 등 남다른 애향심을 보인 인물이다. 그런 그가 김복수 이야기를 강준흠에게 들려줄 때 어느 정도 윤색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베트남을 유자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고, 나가사키에서 서학 철폐를 고취하는 정도까지 조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다.⁵⁾ 결과적으로 「김복수전」은 자신의 당파적 입장이나 제주 지역을 바라보는 육지인의 일방적인 시선에 의해 조정된 작품이라 하겠다.

지금 이 「김복수전」을 장황하게 거론한 것은 모종의 중심(성)이 작동하여 제주, 또는 제주인을 표상한 하나의 사례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소한 18세기까지 제주와 제주인의 모습은 텍스트를 지배한 주체들에 의해 철저히 대상화되어 왔다. 그 흔적을 고전문학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다. 거기에는 일정한 오해와 편견이 개입되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 관련 고전문학이 이쪽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제주 자체로 역사와 문화를 축적하며, 주체적인 삶의 자취를 따라 수많은 이야기와 노래를 공유해 왔다. 이 명백한 결과물은 전설과 민담, 무가와 민요로 꾸준히 전승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제주 안팎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져

5) 참고로 탐라지 후대본인 동경대 소장 『耽羅志』에는 제주 전승담에 없는 김복수가 구라파 사신을 만난 화소가 들어 있다. 하지만 견문과 체험의 요소가 첨가되었을 뿐이지 그가 구라파나 서학에 대해 특별히 반응한 내용은 없다. “州人金福壽, 漂到安南國, 同船者皆死, 不能獨還, 居數年. 有琉球林女春香者漂來, 與之同居, 生三子三女. 後隨日本使行, 入大板[阪]城, 同館有仇羅姿[婆]國使者, 形貌極怪, 削鬚髮, 跣足露, 頭着氈氈周衣, 坐則下體盡露, 亦不爲恥. 有方書十二卷, 其俗不尚儒術. 別立門戶, 名之曰伎利, 又曰偈關. 關伯聞之, 遣使求其法, 故來聘云. 又逢琉球使者, 其中林春榮, 卽春香之弟也, 邂逅相逢, 得傳其妹消息. 竣事後發船, 復路出大洋, 遙見漢攀山, 遂出還鄉之計, 瞞告同船人曰: ‘故國尙遠, 甘水將竭, 今幸大陸在邇, 請汲水而來.’ 乘小艇, 脫身而歸至老死. 不忘林女, 有時登高號哭云.”(『耽羅志』·「邊情(戰守·異船·漂流)」조)

왔다. 이런 상황이고 보면 이 내부에서 생산된 작품들과 타자의 시선에 의해 포착된 작품들이 제주 고전문학의 두 축을 형성한다. 그에 따른 연구도 자체의 독자성을 강조하거나 타자에 의해 조정된, ‘역외성’을 강조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두 가지 방향이나 시각이 교차되거나 정합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다. 이것이 필자가 판단하는 제주 고전문학 연구에 있어서 주요한 현상이자 난제이다.

그런데 이 점을 차치하더라도 다른 문제도 남아 있다. 한국 고전문학에서 제주 고전문학을 어떻게 위치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한쪽은 독자성을, 또 한쪽은 역외성을 강조하다보니 제주 관련 고전문학은 한국고전문학에서 별개의 것 인양 치부되고 있다. 당연히 제주 고전문학은 한국고전문학의 다양성(또는 다종성)과 입체성을 구현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 하나의 판 영역이 아닌 한국고전문학의 주요 범주로 상정되어 그 확장성에 관심이 두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 고전문학이 한국고전문학의 교집합 안에서 정합적으로 작동된다면 양자는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고전문학 연구에서 제주 고전문학은 중요하다.

한편 최근 제주 출신 문인들의 저작이 소개되면서 제주민요나 무가 같은 집단적 창작물과는 결을 달리하는 의식세계의 일단을 상정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육지 문인들의 제주를 바라보는 시각과도 다뤄볼 여지가 생겼다. 제주와 의주에 특설했던 승보시(陞補試)는 제주지식인들이 중앙과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급제자들 중에는 출륙(出六)을 하는 등 중앙정계와 지방관을 수행하면서 애향심을 고취하거나, 제주인으로서 자기정체성을 고민하기도 했다. 제주 출신이지만 일반 제주 백성과는 구별되고, 육지지식인들과는 다른 위계에 있었던 이들 제주문인들의 의식세계는 그 자체로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작 이들의 의식세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집이나 관련 자료는 매우 빈약하다. 현재 가장 이른 시기의 문집은 1790년대에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장령 등을 역임한 변경봉(邊景鵬, ?~?)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그 외에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

기까지 활약한 문인들의 문집이 대부분이다.

마침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장한철(張漢喆, 1744~?)은 변경봉보다 10년 먼저 중앙정계에 진출했다. 그런데 그는 따로 문집을 남기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표류 체험을 『표해록』으로 남겼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다른 표해록과는 달리 그의 내면세계와 제주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18세기 후반 제주문인의 의식세계와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⁷⁾

2. 18세기 제주문인 장한철(張漢喆)과 『표해록(漂海錄)』

장한철은 1770년 가을 제주 향사에서 수석을 차지한 뒤 마을 어른들의 주선과 세 읍에서 마련해준 여비로 곧장 회시를 치르기 위해 상경길에 나섰다. 그러나 이 첫 육지 나들이 길에서 표류하게 되었고, 생사를 넘나들다 생환한 끝에 남긴 기록물이 『표해록』이다. 이후 1774년 제주 승보시에 다시 합

-
- 6) 김새미오, 「일재 변경봉 문집」에 나타난 18~19세기의 제주사회 성격에 관한 일고-유교사회로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20집, 영주어문학회, 2010.
- 7) 그동안 『표해록』에 대한 연구는 처음 정병욱이 이 자료를 학계에 소개한 이래(『표해록』, 『인문과학』 6집,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1961) 그 서사적 성격(서인석, 「장한철의 『표해록』과 수필의 서사적 성격」, 『국어교육』 67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9)과 야담으로의 전이 양상(윤치부, 「장한철의 <표해록>과 한문단편의 관련 양상」, 『고소설연구』 2집, 한국고소설학회, 1996; 정솔미, 「장한철 『표해록』의 야담적 전이양상-『기리총화』와 『청구야담』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7호, 민족문학사학회, 2018), 해외체험의 면모(김경옥, 「18세기 장한철의 『표해록』을 통해 본 해외체험」, 『역사학연구』 48집, 호남사학회, 2012) 등이 조명되었다. 최근에는 제주도와 섬사람들의 면모에 주목하거나(김미선, 「<표해록>으로 본 18세기 제주도선비 장한철과 섬사람들」, 『동양학』 78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20), 텍스트 형성 문제를 밝히는 등(강문중, 「장한철 <표해록>의 텍스트 형성 동인 연구」, 『해양도시문화교섭학』 23집,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0) 점차 다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사례는 없었다.

격하고, 1775년 문과 별시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지금까지 확인된 그의 관력은 1775년 6월 가주서(假注書), 1777년 8월 성균관 학유(學諭), 1779년 2월 학록(學錄), 6월 학정(學正), 7월 성균박사, 1780년 6월 전적(典籍), 12월 이조의 가낭청(假郎廳), 1781년 6월 상운찰방, 1783년 흡곡현감, 1787년 대정현감, 1792년 평시서 주부(平市署主簿)를 역임하였다. 특히 상운찰방으로 있을 때 역폐(驛弊)를 진달하여 정조로부터 ‘먼 지방 출신으로 관의 일을 힘껏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 치적으로 흡곡현감으로 승진된바 있으며,⁸⁾ 대정현감으로 있을 때는 당시 유배인 김우진(金字鎭)의 출륙을 막지 못했다는 죄로 의금부에 압송되어 투옥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그런데 약 3개월 만에 풀려나 평시서 주부로 서용된 사실이 확인되며,⁹⁾ 이후의 사적은 보이지 않는다.¹⁰⁾ 따라서 그의 만년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다.

이런 부침이 있었지만 제주 출신 인사로는 전례에 없는 관력을 거쳤다는 점에서 장한철의 중앙 정계 진출은 주목할 만하다.¹¹⁾ 공교롭게도 그를 이어 약 10년 뒤에 대정 출신으로 변경우와 변경봉이 연이어 과거에 합격하여 장한철과 비슷한 과정을 밟는다. 특히 변경우는 1790년대에 사헌부 장령(掌令) 등을 지내 장한철보다 높은 품직에 오르기도 했다. 여기 변경우와 변경봉은 육촌간으로 대정의 유력한 양반 가문 출신이었다.

이에 반해 장한철의 집안은 제주에서 그리 유망하지 않았다. 그의 6대조

8) 『일성록』, 정조 7년 계묘(1783) 11월 10일조. “敎曰: 祥雲察訪張漢喆, 家在絕域, 視官如家, 事事殫竭, 聲績如許. 似此之人, 尤合獎勸, 今日政道內守令窠調用, 該察訪有關代, 各別擇差, 亦令待明朝辭朝.”

9) 이 시점이 1789년 6월경이다. 여기까지의 관력 사항은 『조선왕조실록』과 『일성록』 등을 참조했다.

10) 『표해록』을 한문단편으로 재구한 『기리총화』 제25화 「張漢喆漂海錄」의 제목 아래에 “漢喆濟州人, 官至高城郡守”라는 주가 달려 있다. 고성군수를 지냈다는 것인데, 실제 고성군수를 지냈는지 아니면 상운찰방이나 흡곡현감을 지낸 관력을 이렇게 잘못 표기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장한철의 후손이 강원도에 살았다는 전언도 있는 걸 보면 이 기록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

11) 같은 애월 출신으로 강봉서(姜鳳瑞, 1746~1823)도 장한철과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하여 1793년에는 장령을 지낸 바 있긴 하나, 장한철보다는 관력이 낮은 편이다.

인 장일취(張一就)가 입도조(入島祖)인바, 애월에 정착한 시점이 17세기쯤이었다. 그는 애초 제주 사족 출신이 아니었다. 증조 양소(揚蘇), 조부 선일(善逸), 부친 차방(次房) 등은 향시에 입격한 예도 없다.¹²⁾ 더구나 부친은 일찍 세상을 떠 장한철은 중부(仲父)인 쌍오당(雙梧堂) 장중방(張重房)에게 양육되었다. 그는 『표해록』에서 숙부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과거공부에 매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¹³⁾ 그러나 장중방도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주도의 양반제는 다른 지역과는 좀 달랐다고 한다. 즉 유학(幼學)이나 유생(儒生) 등 과업을 일삼는 부류가 있었는데 하면 주로 평민층이 담당해 왔던 좌수나 별감, 훈장 등의 자리도 양반이 차지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두 층위의 양반이 존재했던 것이다.¹⁴⁾ 그렇다면 장한철의 집안은 후자에 속하지 않았을까 싶다. 비슷한 시기 대정의 변경우, 변경봉 집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셈이다. 더구나 그는 부친도 일찍 작고한 터 녹록한 상황은 분명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 그가 『표해록』을 정리한 시점, 즉 그의 의식세계가 드러나는 텍스트를 구현한 것은 나이 26세 때였다. 이런 정황은 장한철의 제주문인으로서의 처지를 확인하는데 환기할 지점들이다.

한편 『표해록』은 1770년 12월 25일 출항한 당일에 표류를 시작하여 이듬해 1월 6일 청산도에 도착한 이후 5월 8일 제주로 귀향하기까지의 기록이다. 곧이 3월 3일 서울에 올라가 회시에 낙방한 일과 제주에 돌아온 뒤 불귀의 객이 된 생환자들을 일일이 찾아 조문하는 등 표류 이후의 행적까지 덧

12) 제주 과거 합격자를 기록한 『耽羅賓興錄』이나 『龍榜錄』은 물론, 제주 향시 합격자 기록인 『蓮榜錄』에도 이들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참고로 장한철의 가계는 장한철(김지홍 역), 『표해록』(지만지클래식, 2009)의 「해설」 부분을 일부 참조했다.

13) 『표해록』 12월 26일조. “蓋雙梧仲父堂號也. 噫! 余幼而孤, 養於雙梧堂膝下, 鍾愛甚篤, 有鄧伯道存兄兒之風, 則余之所宜仰報者, 顧何如, 而至恩未報, 脩夜隔紙” 자료는 친필본으로 알려진 국립제주박물관 소장본을 기준으로 한다.

14) 조성윤, 『조선 후기 제주도 지방의 신분구조』, 『사회와 역사』 27집, 한국사회사학회, 1991, 185~195쪽.

붙였다. 그리고 그 달 하순에 이를 정리하였다.¹⁵⁾ 표류 경험이 당장 정리된 사례다. 물론 그는 이미 호산도(虎山島)에 1차 표착했을 때부터 자신의 표류 경험을 적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 체험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 이 『표해록』은 그가 5년 뒤 정계에 진입했을 때 자의든 타의든 자신의 문필력을 과시하는 도구가 된 정황이 발견된다. 1781년 그는 상운찰방으로 있을 때 조정에 입시하여 국왕을 접견할 기회가 있었다.

상운찰방 장한철이 임금을 알현하였다. 임금이 “도정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낭청으로 있었지.”라고 하자, 서명선이 아뢰었다. “이 사람은 제주에 살고 있는데 글을 잘 짓습니다. 그의 『표해록』을 보니 제법 볼만하였습니다.” 임금이 물었다. “어느 곳으로 표류를 했더니?” 장한철이 아뢰었다. “표류하여 안남국이 이르렀는데 그 중에는 대명 유민의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기쁘게 맞아주었습니다.”¹⁶⁾

임금은 그가 낭청으로 있을 때를 기억했고, 정조의 신임이 두터웠던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1728~1791)은 그가 제주 출신이며 글을 잘하는 인물로 평가하면서, 그의 『표해록』을 직접 읽은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당시 국정의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서명선이 이 책을 보았으니 다른 조정의 신료들도 접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분명 장한철이 서울에 올라올 때 이 『표해록』을 가지고 왔고, 그것이 조정 신료들에게 읽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어 정조는 그에게 어느 곳을 표류했는지 물었는데, 그 답이 좀 이상하

15) 『표해록』 필사기. “歲舍辛卯之仲夏下泮, 鹿潭居士識.”

16) 『승정원일기』 1781년 11월 5일(계묘)조. “祥雲察訪張漢詰進伏, 上曰: ‘都政時, 此人爲郎廳矣.’ 命善曰: ‘此人居在濟州, 能善文, 而見其漂海錄, 則頗有可觀矣.’ 上曰: ‘漂到何處乎?’ 漢詰曰: ‘漂至安南國, 而其中有大明遺民子孫, 聞朝鮮人來到, 皆欣迎矣.’”

다. 표류하여 안남국에 이르렀고, 거기에는 대명 유민도 있어서 조선 사람인 자기 일행을 잘 대접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차이가 있다. 아마도 베트남 국적의 상선에 구출된 정황과 선상에서의 임준(林遵) 일행과의 조우를 대명 유민의 환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신이 유자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 싶다.

이와 연관된 제주 전승담도 있다. 장한철이 과거를 보러 가서 이 표류기를 국왕에게 보이고, 국왕은 이를 가상히 여겨 대정현감에 제수했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¹⁷⁾ 물론 실제와는 다르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장한철과 『표해록』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 저작이 그의 관직 진출에도 일정한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는 기대가 들어 있다 하겠다. 아무튼 『표해록』은 장한철의 역량을 과시하는데 직간접적인 효과가 적지 않았던 저작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당시 육지 인사들에게도 관심거리였다. 유만주(兪晩柱, 1755~1788)는 앞서 서명선이 국왕에게 『표해록』의 존재를 보고한 그 해에 이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일기 『흙영(欽英)』 신축년(1781) 6월 초4일조에 “見耽羅張氏庚寅漂海錄(一冊)”이라 하고, 이어서 이 책을 통해 생사의 고뇌에서 어느 정도 초월하게 됐다는 감회를 적고 있다.¹⁸⁾ 유만주는 이틀 뒤에도 계속 『표해록』을 읽고 있었다. 이번에는 이 책에 나오는 다섯 가지 신기한 장관으로 신기루와 고래 및 용오름, 쌍진주와 상선(商船)을 들고 있다.¹⁹⁾ 이

17) 김영돈 외, 『제주설화집성(1)』, 탐라문화연구원, 1985, 373~374쪽. “장한철 할아버지가 배를 타고 잇었는디 바람이 불어서 우리국을 떠내려가서 자꾸 표류기를 일기를 죽었다고. (중략) 당도해서 이제 목심을 살아서 그땃해 또 서월 과거를 보러 갔덴 말여. 대정현감을 벌레 가니까, 그 표류기를 배왔덴 말여 표류기를 배우니, 아 이왕께서 ‘아직 깰지는 우리나라에 이 표류기를 따까서 내안티 배와 본 백성은 허나도 읊다 허나도 읊는디 너 소원이 뭐냐?’ 허니 ‘내 대정현감 허나 소원입니다.’고.”

18) 유만주, 『欽英』 신축부(1781년) 6월 초4일조. “死生命也, 苟其命不宜死, 則雖萬難千危, 無一可生, 而終竟不死. 觀乎此, 則可以夷曠於死生之際矣.”

19) 유만주, 위의 책, 6월 초6일조. “漂海之錄, 環觀有五, 蟹樓也, 鯨魚也, 升龍也, 異珠也, 林舶也.”

처럼 한 서울의 문사에게 이 책은 사생의 문제를 음미하고, 바다 위의 장관과 사건을 경험하게 한 흥미로운 텍스트로 수용되고 있었다.

더구나 이미 알려져 있듯이 『표해록』은 19세기 전반 이현기(李玄綺, 1796~1846)의 『기리총화』와 『청구야담』 등에서 한문단편으로 각색되기에 이른다.²⁰⁾ 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듯이 한문단편 중에는 기존의 문집 등에서 전래된 이야기가 적지 않으나 이처럼 실기 한 편이 이른 시점에 야담화된 예는 없었다. 그만큼 흥미로웠다는 증거다.

이렇게 『표해록』이 당대에 관심을 끈 데는 장한철의 표류 체험이 강렬했을 뿐만 아니라 여타 표류 기록과는 달리 그 소재와 구성 등에서 서사적인 흥미를 끌 만한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도 일부분 지적되었지만,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인이 표류한 기록은 많지만 제주인이 직접 경험한 표류기록을 작품으로 남긴 사례로는 이것이 유일하며, 따라서 육지인이 남긴 표해록과는 그 심상이 상당히 다르다. 둘째, 이 작품은 표류와 항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가 수렴되었다. 즉 뱃사람들의 습속, 신기루와 용오름, 해산물 횡재, 해적과의 조우, 무역선의 구조 등등이 요소요소에 배합되어 흥미를 제고한다. 자칫 작위적이란 느낌이 들 만큼 다양한 요소들이 침입되어 있다. 셋째, 다른 표해록류에서 볼 수 없는 저자의 내면심리와 승선한 이들과의 갈등 등 선내(船內)의 서사가 다채롭다. 넷째, 꿈이나 복선에 해당되는 소재를 적절히 배치하여 문학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 점은 이를 각색한 『기리총화』와 『청구야담』의 이야기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쪽은 작자의 내면심리나 선상의 갈등, 그리고 상기한 문학적 요소들이 사건 위주로 구성되면서 대부분 탈락해 버렸다. 최근 연구에서 이 한문단편화를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 평

20) 특히 처음 한문단편화 된 『기리총화』(임형택소장본)에는 이야기 제목을 ‘張漢喆漂海錄’이라고 하여 『표해록』을 그대로 가져와 재구성하였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청구야담』에서는 주인공을 3인칭으로 처리한 것에 반해 여기서는 1인칭 시점을 유지하고 있다.

가한바 있다.²¹⁾ 그러나 사건 위주로 구성하다보니 주인공의 내면이나 갈등의 국면들이 오히려 반감돼 재미가 덜하다. 그만큼 『표해록』은 문학적인 요소가 풍부한 저작이다. 단언하건대 이 책은 최부(崔溥) 『표해록』의 전통을 이은 것이지만, 다른 표해록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18세기 한국 실기문학의 정수라 할 만하다. 그것은 독특한 위치에 있었던 제주 문인이 자신의 의식세계로 구성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3. 장한철의 표류 체험에 구현된 제주/제주인과 외부세계

『표해록』의 풍부한 내면세계와 외부세계와의 대응 등은 크게 두 가지 방면에서 확인된다. 표류하는 배 안에서 동승자들과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이 그 하나이다. 기실 표해록 중에 이 자료만큼 선상에서의 사건을 다룬 것도 없거니와, 그런 속에서 장한철의 내적 번민도 과감 없이 드러나 있다. 다른 하나는 배 밖, 즉 외부세계와의 조우이다. 안남 국적의 상선을 만나 1차 구출되었다가 다시 청산도에 표착하여 생환하기까지 계속 다른 세계와 접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장한철의 의식세계의 일단이 드러나면서 각각의 층위를 구성하게 되었다.

1) 선상 갈등과 ‘제주사람들’

애초 장한철은 제주 출신임에도 항해의 경험이 전무했던 것 같다. 그는 승선한 직후 지나치는 화탈도(관탈섬)를 보고 저곳에 사람이 사는지, 제주와 육지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묻기 바쁘다. 그런데 이것부터가 화근이었다. 화가 난 사공을 본 노잡이 고득성(高得成)은 ‘배에서는 손을 들어 한 곳을

21) 정솔미, 앞의 글 참조.

가리키거나, 바다 위에서는 길의 멀고 가까움을 물어서도 안 된다’는 뱃사람들의 속기(俗忌)를 알려준다.²²⁾ 장한철로서는 당혹스러웠다. 그러던 중에 큰 고래가 나타나 배를 삼킬 듯 덤벼들었다.

뱃사람들은 모두 질린 낫빛으로 배 안에 엎드려 고래와 마주치지 않으려 하였다. ‘관세음보살’을 외는 소리가 그치질 않았다. 이윽고 고래가 지나가 멀어지고 나자 파도가 잔잔해지고 배도 안정되었다. 나는 뱃사람들을 나무랐다. “소리 내거나 기척하지 않으면 저것이 배가 있는지도 모를 것이야. 그 게 웅지 관세음 소리는 무엇 하러 내는가? 저것이 도를 닦는 중도 아니거늘, 어찌 관음불이 존귀함을 안다고? 설령 관세음의 남은 영혼이 있다하더라도 어찌 저것을 읊아매 우리 배를 지켜주겠는가? 자네들이 관음에게 비는 게 무엇이란 말인가?” 뱃사람들은 그래도 내 말이 그렇지 않다 하며 저들끼리 속삭였다. “배안에서의 일은 당연히 뱃사람에게 맡겨 뒤편이 어찌 저이는 자기가 많이 안다고 저러지?”²³⁾

뱃사람들이 생사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관세음보살’을 외며 구원을 바라는 것은 아주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다. 바로 동아시아 해양문화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관음신앙이다.²⁴⁾ 그런데 장한철은 이런 뱃사람들의 오

22) 『표해록』 12월 25일조. “余以手指點曰 (중략) 沙工目余而不答, 如有所欲言而不發, 高得成在旁, 密謂曰: ‘舟中本不舉手指點, 海上不問前路遠近者, 俗忌即然, 不可不知也.’”

23) 『표해록』 12월 25일조. “舟人皆失色, 俯伏於船中, 欲其不相見, 而猶誦觀音菩薩之聲, 不絕于口. 頃之, 鯨去已遠, 波靜舟平, 余責舟人曰: ‘屏息聲氣, 使彼物不知有舟船, 則可也, 而觀音之聲, 何爲而發也? 彼物非修道之僧, 豈知尊觀音之佛? 觀音之殘魂餘靈, 亦豈能鞿羈彼物擁護此船耶? 爾於觀音, 抑何所祝?’ 舟人猶以余言爲不然, 而密相語曰: ‘船上之事, 固當付之於舟人, 何如彼自多知識耶?’” 이하 번역은 김지홍 역, 앞의 책을 참조하되 필자가 대폭 조정하였다.

24) 그 사례가 초기 동아시아 표류담에 잘 드러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환국, 『동아시아 漂流敘事 서설』, 『대동문화연구』 100집, 대동문화원구원, 2017 참조.

랜 습속을 완전히 무시한다. 관음에게 빌어서 무슨 득이냐는 것이다. 예의 유가지식인이라면 얼마든지 할 만한 발화이다. 그렇다고 제주인 장한철이 뱃사람들의 습속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고 짐작되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의도적인 도발일 수 있다. 이것이 뱃사람들의 생리와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기에 향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저들과 자신을 구분하는 논리로 제격이었다. 뱃사람들의 ‘뱃일은 뱃사람들에게 맡겨야 하지 지식분자가 나설 게 아니다’는 멘트는 문인 장한철이 바다의 금기와 생리에 대해 도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런데 향해 첫날 폭풍우에 휘말려 표류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급변한다. 사실 선장격인 사공 이창성(李昌成)을 비롯해 동선한 누구도 지금까지 본격적인 표류를 경험해 본 적은 없었다. 당연히 뱃사람들은 표류하고 나면 죽는 것 밖에는 도리가 없다고 여겼을 터다. 실제로 이들은 표류가 시작되자 두려움에 떨며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다. 하지만 장한철은 자신의 식견을 총동원하여 이들을 피기 시작한다. 바람과 방향에 따라 중국이나 유구 같은 육지에 닿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준 것이었다. 이런 생환의 기대로 뱃사람들은 점차 장한철을 의지하고 따르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배안에서의 위치가 서서히 역전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 사이의 괴리는 여전하여 사안마다 다툼은 지속되었다.²⁵⁾ 그러다보니 걸핏하면 뱃사람들을 두고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라며 불만을 쏟아낸다.²⁶⁾ 물 받는 일을 두고 제주 상인 김재완(金才完)이 악담을 해대자, 그를 두고 장한철은 사납고 흉포한 자로 매도해 버린다.²⁷⁾ 뿐만 아니다. 자

25) 『표해록』 12월 26일조. “蓋余所以百道誘引，使自慰安者，欲使舟人宣力於卸水救船，而亦不欲見衆人哭泣之景色也。其爲苦心焦思，殫盡心力，則非衆人之所知也。衆人則見欺於余，而知有可生之路，故不甚用心，惟祝天而祈活性命，或誦觀音菩薩，以祈神佑。”

26) 『표해록』 12월 25일조. “(전략) 有此設詭而慰解之，然而隨風漂流之船，安知其必泊於外煙乎？且維楫盡失傾覆可慮，安得以涉萬里之海，泊中土之岸乎？舟人皆愚駭，見欺於我，船上執役，惟命是從。”

신과 같은 처지의 김서일(金瑞一)마저도 악다구니를 펴 붙는다.

“집사는 일찍이 ‘남아가 이 섬에 사는 건 가마솥의 물고기 신세와 다를 바 없으니, 어찌하면 태서인의 40리나 되는 종려선을 타고 사해를 돌아다니며 세상의 장관들을 볼 수 있을까. 내 평소 소원이 이러하네.’라고 하더니, 지금 일엽편주를 타서 만리창과에 떠다니니 흥취는 어떻고 원하는 바는 이미 펴셨소?” (중략) 김생이 순간 나와 등을 지며 드러누워서 “내 아들 손자들과 자네 아들 손자들과는 이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될 거야.”라고 하였다.²⁸⁾

언젠가 장한철은 김서일에게 제주에 살고 있는 게 솔에 들어있는 물고기 신세라며 한탄하면서 서양의 종려선을 타고 세계를 주유할 꿈을 얘기했던 모양이다. 잠깐이지만 호기로운 그의 모습이 김서일의 이 발화를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나 김서일은 지금 이 작은 배 안에서 표류하고 있으니 어 떠냐며 비아냥거린다. 괜히 자신을 꼬드겨 사지로 몰아넣었다며 원망하는 것이다. 이런 김서일에 대해 장한철은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는데, 같은 제주 출신 유자이거니와 지금 뱃사람들과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불안감을 숨긴 채 애쓰는 자신을 이해해 주기는커녕 저들과 한통속이 된 것이 못내 아쉬웠다. 그럼에도 그를 다독이려 애쓴다.²⁹⁾

실제 장한철은 누구보다도 이 표류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비록 자

27) 『표해록』 12월 26일조. “余於昨夜風雨之時，問知水桶所儲不多，欲使舟人承雨，而貯之水桶，則金才完素冥頑者也，乃曰：‘龍宮之廚，自有甘泉，何必費雨而入去耶?’語道極凶，故不欲多提辭說。”

28) 『표해록』 12월 26일조. “執事嘗自言，‘男兒生此島中，無異釜中之魚，安得泰西人四十里棕櫚船，周遊四海壯觀天地間耶? 平日所願，每如是矣’ 今幸駕一葉之扁舟，泛萬里之滄波，興趣如何? 志願已伸乎? (중략) 金生忽背余而頽臥曰：‘吾之子子孫孫，當與君之子子孫孫，結戴天之讎矣.’”

29) 『표해록』 12월 26일조. “余非木石，非不摧肝裂腸，情理罔極，而所以矯情抑懷，不示幾微色於人者，莫非慰衆心而得死力之計也。然則瑞一之責我無心者，不知我也。余難於爲答，但笑而答曰：‘君不知我心，自有穩絃心事之日矣.’”

신이 주도하는 표류항해가 이어지고는 있었으나, 호기롭게 출발할 때의 모습은 간데없이 불안과 수심이 교차하는 나약한 표류자의 심리를 작품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³⁰⁾ 2차 표류로 청산도 앞바다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였을 때는 피를 토하며 혼절하고 만다. 이 한계 상황에 봉착하자 작년에 죽은 동향의 인물들이 저승길을 인도하는가 하면, 온갖 도깨비들이 눈에 아른거리며 삶에 의지를 놓아버리기까지 한다.³¹⁾ 이런 그 자신의 상황을 가감 없이 기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속되는 표류는 이들을 점차 하나로 뭉치게 한다. 마치 관계 회복과 의기투합이 생환으로 귀결되는 양태다. 그 일차적인 실마리는 장한철이 저들의 생리나 행위를 이해하고 용인하면서 풀리기 시작했다.³²⁾ 여기에 뱃사람들의 속죄와 제주상인의 성의³³⁾가 화답하여 뜻밖에 화해모드가 조성된다. 이 과정은 장한철이 제주 뱃사람들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급기야 그는 이들의 삶을 무한한 연민의 정으로 담아내기에 이른다.

30) 그 한두 가지 사례다. “余則明知有必死之理，雖外作泰然之色，以自寬抑，而心地抑塞胸膈，煩燥頻索水飲。以至眼花赤如血。”(12월 26일조) “余則高臥敝頭，耿耿不寐，撫躬自憐眇然天水間一隻影也。仍自念命道之險覺，身世之漂落，不覺悲淚盈襟。”(12월 27일조)

31) 『표해록』 정월 6일조. “余聞此言，驚魂飛越，不能自定，欲哭而聲不出，仍嘔血數掬以昏仆不省，已住冥途人矣。濟州人金振龍·金萬石者，余之同里閭，而曾於己丑秋漂沒於海中者也。今於昏倒中，即見兩人在前 (중략) 其他魍魎之怪，千態萬象，而皆接于眼。蓋是時神不守舍，身在幽明間矣。”

32) 『표해록』 12월 26일조. “蓋余所以百道誘引，使自慰安者，欲使舟人宣力於卸水救船，而亦不欲見衆人哭泣之景色也。其爲苦心焦思殫盡心力，則非衆人之所知也，衆人則見欺於余，而知有可生之路，故不甚用心，惟祝天而祈活性命，或誦觀音菩薩，以祈神佑，余則明知有必死之理，雖外作泰然之色，以自寬抑，而心地抑塞，胸膈煩燥，頻索水飲，以至眼花赤如血。鄭寬成披包中，饋余黃柑五枚，其他或以橘柚，或以酒脯，爭先饋余，衆人之至誠事我，則有如是矣。”

33) 『표해록』 12월 28일조. “沙工曰：‘島中若無甘泉，則勢將坐而待死，誰能行尋甘泉之所在乎？’金才完應聲而出曰：‘頃於海上，吾有妄發惡談之罪，願辦尋泉之功，以贖妄言之罪。遂治履而將行….’” 12월 30일조. “日晴，諸人或往浦口而採鮓，或登山頭而掘薯，暮而諸人皆來會，山菜滿欄，海錯盈筐，而姜才裕持大鯪來，示余曰：‘此鯪極大，故欲作鱠以進，別包持來矣。’”

아! 뱃사람들의 업이란 배와 노를 집삼아 오랫동안 바다 위에 있으니, 그 일이 지극히 고될 밖에. 하물며 아침에 배 한 척이 표류하면 뱃사람들이 다 죽고, 저녁에 배 한 척이 침몰하면 뱃사람들이 다 죽게 됴야! 이 때문에 뱃사람은 그 뼈를 고향 선산에 묻는 일은 매우 드물다. 그래서 탐라 사람들은 뱃일 피하기를 마치 함정과 덧 피하듯 한다. 죄를 지어 교화하기 힘든 백성이 있으면 으레 뱃일을 맡게 하는데, 이는 사지에 두는 것이라 다들 반드시 죽게 되리라 마음먹고 더욱 더 어질지 못한 술수를 부리게 된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들을 ‘죽일 놈’으로 못 박고 만다. 허나 지금 저들의 행실을 보면 본래 그 성품이 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화도에서 바람을 만나기 전까지 내게 복종하지 않았던 것은 저들이 마음이 악해서가 아니라 습속이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 배가 표류하여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진심으로 슬퍼한 것은 나를 따르고자 해서이지 나의 덕이 저들의 악함을 교화한 것이 아니다. 저들의 성품이 본래 착해서, 죽을 때 선한 말을 하는 것이리라. 내 이제 참으로 세상에는 본성이 악한 사람은 없다는 걸 알겠다. 무릇 선하고 악한 차이가 있음은 말은 일에 따라 만들어지고 길들여진 차이일 뿐이다. 맹자의 성선설을 나는 여기서 그 실증을 얻었다.³⁴⁾

청산도 서덜에서 배가 난파되어 일부만 살아남았다. 그들은 장선비가 이미 죽었을 것이라며 통곡하였다.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와 같이 이해한 것이다. 뱃일의 고됨과 죽음, 그것은 분명 육지인의 삶과는 다른 것이란 점,

34) 『표해록』 정월 6일조. “噫! 船人者人役也, 以舟楫爲家, 長在海上, 其爲役也至苦, 而況朝漂一船焉而船人死, 暮沒一船焉而船人死! 是故, 船人之瘞骨故山者, 鮮矣. 而耽羅之人, 避其役, 如避奔罟. 若有作罪犯科難化之民, 則必付役於船人, 置諸死地, 故皆懷必死之心, 益肆不仁之術, 人皆目之以可殺. 而今以此行觀之, 則其性之善, 固自如也. 鷺島逢風之前, 果多不服於余者, 非其心之惡也, 其習使然也. 漂船臨死之時, 則誠心惻怛, 惟余是從者, 非余之德能化其惡也, 以其人性本善, 將死善言而然也. 吾固知世無性惡之人, 而若夫有善有惡之不同, 職由所養所習之有異也. 孟夫子性善之說, 余於是得其實矣.”

제주 사람들이 얼마나 뱃일을 피하려고 했고, 그들에 대한 싸늘한 시선 등도 제주 출신으로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을 터다. 여기에 착한 심성의 이들이 고된 뱃일을 통해 사나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표류를 통해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맹자의 성선설까지 끌어온 점이 좀 지나치기는 하지만, 이 뱃사람들에 대한 음미는 저들의 생리와 현실을 가장 절실하게 이해한 부분이라 하겠다. 처음 장한철에게 ‘어리석고 미련하며’ ‘어둡고 사나운 자’이던 뱃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연민의 대상이 되었다. 어느 순간 제주 문사 장한철과 제주 뱃사람들은 그 위계를 넘어 그야말로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이 되었다.³⁵⁾

이 제주사람들의 재발견은 다른 표해록에서는 결코 만나볼 수 없는, 오직 이 제주인이 기록한 『표해록』에서만 구현된 면모이다.

2) 외부세계와의 만남과 그 대응

장한철 일행은 유구의 호산도(虎山島)라는 무인도에 표착하면서 본격적인 외부세계와 접촉하게 된다. 그런데 장한철은 남해(南海)의 세계, 다시 말해 한반도가 제외된 동서의 무역라인이 펼쳐진 남양 바다에 접어들면서 자신들이 탐라인임을 숨기려한다. 그것은 17세기 초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이었다. 일명 ‘유구세자 살해 사건’이다. 우선 장한철은 이 사건을 신해년(1611) 제주에 표착한 유구 태자가 제주목사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으로 알고 있었

35) 이에 앞서 표류 중에 한라산을 발견한 이들이 ‘白鹿’과 ‘誥麻(선문할망)’을 외치면서 울며 환호하는 장면은 인상적이다. 그 속에 장한철도 포함되어 있었다. 제주인으로서의 상징성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표해록』 정월 5일조. “平明, 見大山在東北, 乃漢拏山也. (중략) 漂人輩忽見漢拏之近前, 喜極而不覺放聲號哭曰: ‘哀我父母, 陟彼岵矣.’ ‘哀我妻子, 陟彼岡矣.’ 或起拜向漢拏而祝曰: ‘白鹿仙子, 活我活我! 誥麻仙婆, 活我活我!’ 蓋耽羅之人, 諺傳仙翁騎白鹿, 遊于漢拏之上, 又傳, 遼古之初, 有誥麻姑步涉西海而來, 遊漢拏云, 故今者, 所以祈活於誥麻·白鹿者, 無所控訴而然也. 余亦悲喜冊中, 無以爲喻.”

다. 이 때문에 유구와는 화친이 끊어졌고, 유구인은 제주 사람을 보면 복수하려한다는 것이다.³⁶⁾ 그러면서 유구에 표착하면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 조선인, 다시 말해 육지인 행세를 해야 한다며 소지하고 있는 호패를 바다에 던져버리도록 한다.³⁷⁾

하지만 정작 호산도에 표착했을 때는 ‘남해불(南海佛)’이라는 해적들에게 호되게 당한다. 장한철은 이 해적을 왜구라고 확정했는데, ‘남양 바다의 부처’라는 이 닉네임은 왜구만이 아니라 중국 남서 해안과 동남아 해양 지역을 통관하던 해적들이 자칭하던 용어이다. 대개 다국적, 또는 무국적의 해적집단으로 남양의 무역루트에 출몰하였다. 최부의 『표해록』이나 조위한(趙緯韓)의 「최척전(崔陟傳)」 등에서 확인되듯이 표류에서의 해적과의 조우는 통과 의례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장한철 일행은 이 해적에 이어서 당시 남해의 무역루트를 오가던 무역선과도 조우한다. 이 무역선은 선원 구성과 선체의 규모면에서 흥미를 끈다. 상선의 국적은 안남인데, 임준 등 중국인도 승선하고 있었다. 즉 대명유민과 베트남인으로 구성된 다국적 상선인 셈이다. 여기 임준의 실체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자신을 안남에 넘어와 생활한 지 오래된 명나라 유민이라 소개한다. 그리고 지금은 일본과 베트남을 오가며 무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⁸⁾ 그러나 대명유민이라면 이미 선대에 안남으로 내려와 장사를 하며 터를 잡은 ‘화교(華僑)’였을 터다. 이 시기 동남아 지역의 화교와 상업 활동의 정황이 이 임준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이 상선은 4층의 규모를 자랑하는 그야말로 대외 무역선이었다.³⁹⁾ 이 표류를 통해 장한철 일행

36) 『표해록』 12월 26일조. “余曰: “在昔琉球與我國通好, 而琉球使臣玉之, 泊舟昇平館, 乃全羅道順天府也. 海路隔遠, 雖不得頻通使价, 前後琉使之至者三, 其二忘其名也. 逮至光海朝辛亥年間, 琉球太子飄船到濟州, 其時牧使誣以寇邊, 火攻殺之, 奪其貨貝. 自此, 琉球絕和云矣. 彼見濟州人, 則豈無復讎之心乎?”

37) 『표해록』 12월 27일조. “(전략) 舟人所佩號牌, 皆令投之海中者, 到琉球後, 欲諱其耽羅蹤跡也.”

38) 『표해록』 정월 2일조. “答曰: ‘俺大明人, 遷居安南國, 在古矣. 今因販豆, 將往日本.’”

이 목도하고 있는 남양의 광경은 조선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한 것이었다.

문제는 앞서 장한철이 염려했던 상황이 이 무역선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다. 구출된 장한철 일행이 일본을 향해 가던 중 선상에서 한라산을 보고 환호작약한 게 화근이었다. 이윽고 배 안에서는 생각지 못한 소요가 일어났다.

곧 임준이 저들과 말을 주고받는 게 보이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얼마 뒤 서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려 하였다. 두건을 쓴 임준 등 수십여 명이 한쪽에 둘러섰고, 머리를 깎은 80명도 갈라서서 다른 한쪽에 모여들었다. 저들은 험악하게 굴며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성난 눈으로 고향을 치며 임준 일행과 한바탕 붙을 기세였다. 임준 일행은 얼굴빛을 누그러뜨리고 저들을 달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렇게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정오가 넘어 서고 있었다. 그러나 통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저물녘에야 임준이 글을 써서 보여주었다. ‘옛날 탐라의 왕이 안남의 세자를 살해했기에 안남 사람들은 상공이 탐라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칼을 가지고 배를 갈라 나라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이었소. 우리가 극구 달라고 달래 겨우 저들 마음을 돌리기는 했으나, 여전히 원수들과는 한 배를 타고 갈 수 없다고 하는구려. 상공과는 여기서 길을 나누어야겠소’ 세상에 전해지기로 옛날 제주목사가 유구 태자를 죽였다 했는데 그것이 유구 세자가 아니고 안남 세자였던 말인가?40)

39) 해외 무역선의 규모와 제도를 기록한 것 중에 이렇게 상세하고 현실감 있게 묘사한 사례도 따로 없다.

40) 『표해록』 정일 5일조. “(전략) 卽見林邊與彼人輩, 有酬酢之語, 而不可曉也. 已而, 相與喧噪, 有爭鬪之狀, 而着巾者林邊輩數十餘人, 環立一邊, 削髮者八十人, 亦分倚聚立於一邊, 肆惡高聲, 怒目咆喝, 向林邊輩, 若將鬪鬪者然. 林邊輩則皆有緩頰相誘之色, 而如是相持, 日已過午, 莫知其故也. 至晚, 林邊書示曰: ‘昔耽羅王殺安南世子, 故安南人知相公爲耽羅人, 皆欲手刃其腹, 以報國讐. 俺等萬方勉諭, 僅回其心, 而猶以爲不可與讐人同舟而濟, 相公當自此而分路矣.’ 蓋世傳在昔濟州牧使, 殺琉球太子云者, 非琉球而乃安南世子耶?”

이 선상에서 벌어진 임준 측과 베트남인들 사이의 살벌한 대치는 다름 아닌 구조한 일행이 탐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소요를 겪으면서 장한철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제주에서 살해된 이가 유구태자가 아니고 안남세 자일 수 있다는 점에 곤혹스러워 한다. 결국 이 때문에 장한철 일행은 이상선에서 강제로 하선하여 다시 망망대해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사실 이 사건은 광해군·인조 시기에 정치적 사안으로 떠오를 만큼 논란이 컸으며, 피의자로 이 시기 제주목사를 지낸 이기빈(李箕賓)이 지목된 바 있다. 또한 후대에도 이를 두고 여러 자료에서 언급되거나 조명되기도 했다. 현재 이 사건의 실상을 따지는 연구도 여러 편 제출된 상황이다. 최근에는 1610~1612년 사이 제주에 표착한 황당선과 이를 공격한 두세 가지 사건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허구로 보고 있다.⁴¹⁾ 이는 일본에서도 관심을 가져왔고, 비슷한 맥락에서 ‘만들어진 전설’로 파악하고 있다.⁴²⁾ 특히 일본쪽에서는 사츠마와 베트남 사이의 교린과 상업 활동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증명하고자 했다.

문제는 분명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살해된 주체가 태자가 아니었을 뿐이다. 그러니 조작된 허구나 전설로 따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유구 상선이었던 안남, 또는 사츠마 상선이었던 표착한 이들은 재물을 약탈당하고 살해까지 당한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한철이 안남 상선에서 겪은 이 경험은 이 사건을 새롭게 환기시켜 준다. 이를테면 당시 제주에 표착한 상선에는 유구 선원과 베트남 선원이 함께 승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들이 모두 피해를 입었고, 이후 해역세계에서는 유구와 베트남은 그 피해 당사자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정작 우리 쪽에서는 이런

41) 홍진옥, 「유구 세자 살해설」과 김려의 <유구왕세자외전>, 『대동한문학』 47집, 대동한문학회, 2016.

42) 후지타 아키요시(藤田 明良), 「17世紀初頭の濟州島地方官による「荒唐船」攻撃事件と島津氏の安南通交-『増補耽羅誌』にみる琉球王子殺害事件の真相」(천리대 조선학회 2019년 발표집).

정황도 갈파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이 소란을 통해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한 제주목사의 탐욕과 표류정책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조선정부의 민낯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조선후기 ‘제주’는 해역세계에서 폭력적인 공간으로 각인되고 있었고, 무고한 제주민은 선상에서 이런 고초를 겪어야 했다.

주목할 것은 장한철과 대명 유민 임준의 만남이다. 임준과 그 일행은 장한철을 조선 선비로 대접했고, 장한철은 이들이 야만과 폭력이 앞서는 바다 위에서 만난 은인이었다. 여기 대명유민을 대하는 장한철의 태도와 임준의 반응은 예사로 넘길 부분이 아니다.

나는 그가 명나라 사람임을 알고는 절로 눈물을 흘리며 글을 써서 말했다. “(중략) 이제 만 리 떠도는 물결 위에서 다행히 상공을 만났으니, 이는 사해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일가의 신자(臣子)와 같습니다. 만일 구조해 주어 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나의 삶은 황명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을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곧 두건을 쓴 그를 보니, 나의 글을 읽으면서 슬퍼 오염하는 뜻이 말과 얼굴빛에 넘쳐났다. 붓을 잡아 점을 찍었다. 또 읽고 그때마다 점을 찍었다.⁴³⁾

대국의 은인을 만난 감격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는 임준을 두고 ‘사해의 동포이자 한 나라의 신자’라며 눈물을 흘린다. 아울러 자신이 살아 돌아갈 수 있다면 거듭 재조지은(再造之恩)을 입은 격이라며 송명의리를 곧 추세운다. ‘두건을 쓴’ 임준도 장한철의 정성스런 글을 보고 감격해 한다. 지금 고향을 떠나 바다 위에 난민이 된 장한철과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생활하

43) 『표해록』 정월 2일조. “余知其人之爲明人也, 不覺涕泣而書曰: ‘(중략) 今於萬里萍水, 幸逢相公, 非徒四海之兄弟, 同是一家之臣子, 若蒙拯活生還故國, 則惟我一生, 無非皇明之賜也. 不知何處是我死所?’ 卽見着巾者, 讀我書而悲咽之意, 溢於辭色, 援筆點之, 且讀且點.”

는 임준은 중화를 매개로 하여 하나가 되었다. 이 때면 중앙 학계에서는 일부 지식인들에 의해 ‘북학’이 한창 무르익고 있는 즈음이다. 그런 터라 이들의 만남이 시절 지난 행태로 비춰지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 이때도 여전히 다수의 조선 유자들은 장한철과 비슷한 대명의를 개진하고 있었다. 여하튼 이 발화를 통해 유가지식인 장한철의 대외인식의 기저가 드러나고 있다.

본선에 승선한 뒤에도 이들의 대화는 이어졌는데, 주로 조선의 상황을 묻고 대답하는 내용이였다. 장한철은 유교국가로서의 조선의 면모를 임준에게 각인시켜 주었고, 그 효과는 적지 않았다. 어느 덧 ‘귀국(貴國)’이니 ‘상공(相公)’이니 하며 서로 존대하게 되자, 장한철은 남쪽 바다 오랑캐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느껴워 한다.⁴⁴⁾ 무질서가 판을 치는 바다 위 선상에서 유교 질서가 구현되고 있으며, 섬 지역 한미한 출신의 문사가 일약 예의지방인 조선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부상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이 모습이 함께 표류한 제주백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자신의 이미지였을 터다. 제주 출신이지만 제주를 넘어선 유가지식인으로서 거듭나고 싶었던 욕망의 투영이라 하겠다.

이런 장한철의 외부세계와의 대응과 분투는 2차 표착지인 청산도에선 좀 다른 차원에서 전개된다. 그곳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대접을 받는다. 도민(島民)들의 호의는 말할 것도 없고, 조씨녀(趙氏女)와의 하룻밤은 뜻밖의 성사였다. 그것은 양반인 장한철에 대한 특전이자 수혜였다. 이 때문인지 장한철과 섬사람들 사이엔 모종의 위계가 상정된다. 이는 그의 시선을 통해 잘 드러나기도 한다. 장한철은 청산도민이 직면한 현실, 즉 육지인의 횡포와 수탈을 목격하고⁴⁵⁾ 이 고통에 누구보다도 공명한다. 또한 이곳을 다스리는 관리

44) 『표해록』 정월 4일조. “自此, 彼人之間我文字間, 不曰爾國, 而必稱‘貴國’; 不曰爾們, 而必稱‘相公’. 噫! 我東以禮爲邦, 天下慕之, 雖以余之鄙夷, 猶見敬於蠻貊. 書不云乎, ‘民之秉彝, 好是懿德’ 信乎! 斯言之不我欺也.”

45) 『표해록』 정월 10일조. “暮時, 忽聞喧闐之聲在街上, 問其故, 主人答曰: ‘海島遐遠, 王化不霑, 北陸之人入島作弊者, 多矣.’”

가 이를 직시하고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메시지도 내보인다.⁴⁶⁾ 그렇지만 제법 분위기가 있고 현실적인 감각으로 그려낸 조씨녀와의 하룻밤이나 청산도 문사 정재운(丁載運)과의 만남에서 저들의 무식함과 문사들의 고루함을 확인한다.⁴⁷⁾ 이런 부분에서는 적잖은 불편함도 느껴진다. 한편으로는 이들의 현실에 공명하면서도 또 다른 하위를 바라보는 장한철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처음 청산도를 스케치했을 때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와의 거리를 상정하고, 저들의 생활과 시스템을 짚은 것⁴⁸⁾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하위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투과된 예라 하겠다.

이처럼 장한철은 외부세계와 접촉했을 때 때로는 자신의 출신을 숨겨야 했고, 때로는 조선을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거듭나기도 했다. 그리고 청산도에선 저들을 위무하는 상위자로 행세하기도 한다. 그런 과정에서 제주문사로서의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다.

4. 제주지식인으로서의 면모와 그 정체성의 일단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 『표해록』의 특징은 표류 과정에서 항해의 경험이 전혀 없는 선비 장한철이 선상을 주도하게 된다는 점이다. 뱃사람들

46) 『표해록』 정월 10일조. “今此島人，寧失所重之牛，而含憤忍性，不敢與千吏李弁相訟者，可知積威之所約，而可哀者非島人耶？爲邊海守宰者，當譏察諸島，使無是弊也。”

47) 『표해록』 정월 11일조. “有丁載運者，携酒來慰，坐語良久，余問其所業何事，載運曰：‘粗攻翰墨，將欲觀科矣。’然而言語之間，多愚懵之說。(중략) 蓋島人無識，只知有抄家禮中所載之祝文，而不復知有帛祭文字，故有是問也。自處以文士者，其無知識如此，則它尙何論？”

48) 『표해록』 정월 8일조. “本島在海中，而隸新智島鎮，北距本鎮水路爲百餘里，南距耽羅七百里，島之幅員三十里，居民累百家，山楮而無獸，野清而無雉，水田最沃，海錯亦饒，富兼農利，貧賴海採，地產草席甚美，民俗等級不明，草屋櫛比，男少而女多，漁艇絡繹，朝出而夕返，有屯長一人，檢察一人，主管本島，而規模如鄉里間風憲·約正矣。”

의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고, 바다와 지리에 대한 그의 지식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사실 이 과정은 매우 낮은 풍경이다. 그는 과거를 치르기 위해 상경하는 일개 선비였다. 더구나 이 배에서 관원 같은 지위도 있지 않았다. 그런데 표류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는 이 배의 선장이 되어 갔다.⁴⁹⁾ 이 어색한 구도가 실제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워낙 자신의 관점과 시선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주목할 점은 그의 지식이 이 주도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표해록』을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봐 온 소재가 있는가 하면, 작자의 해양과 관련한 지식이 족출하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각종 서적이나 지도 등을 인용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주목하여 최근 이 저작이 다양한 문헌의 활용과 여러 해양 이미지를 수용하여 성립되었다는 연구도 나왔다.⁵⁰⁾ 확실히 신기루나 고래, 용오름 현상 같은 소재가 불과 10여 일 사이에 다 일어났을까 싶을 정도로 다 집적되어 있다. 또한 앞에서 거론한 연이은 배들과의 조우도 상당히 극적으로 비춰진다. 이런 점에서 좀 작위적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그럼에도 이런 여러 상황에서 발휘되는 장한철의 지적 표지들은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사안이다. 후대 표류서사를 견인한, 고려시대 탐라인 정일(貞一) 일행의 표류 사적과 최부의 『표해록』을 인용한 것이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나, 각종 야사나 제주 및 해양과 관련된 지적 도구들은 저자 장한철의 역량을 판단하는데 요긴해 보인다. 무엇보다 이런 그의 해양 관계 지식은 뱃사람들의 생리와 습속들을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됐다는 점에서 요긴했다.

먼저 장한철은 닻의 원리(12월 25일조)나 지남철로 방위를 측정하는 법(12월 26일조 등), 무인도의 생리(12월 28일조), 바닷물로 소금을 만드는 법(12월 28일

49) 『표해록』 12월 26일조. “自此, 舟人皆俯首從命, 凡係指揮, 惟余是望, 卓然作一船中篙師焉.”

50) 강문중, 앞의 글.

조) 등 적지 않은 실용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대개 바다와 섬에 관련한 것들로, 그가 제주 출신이라는 점을 환기시켜준다. 또한 사인(士人)이면 으레 하는 점복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하루를 점치거나 앞날을 예측하곤 한다. 또 다양한 경전(『맹자』, 『장자』, 『시경』 등)과 사서(『사기』, 『고려사』 등)가 활용되고 있음은 꽤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일반 표해록에서는 거의 수용되지 않은 문체, 이를테면 청산도에서 조씨녀와의 하룻밤 에피소드에는 전기(傳奇)서사의 문체가 농후하며,⁵¹⁾ 죽은 뱃사람들을 위해 지은 제문(祭文)은 일반 제문과는 다른 글쓰기를 보여준다. 이런 점은 이 작품의 문학적 면모로 주목받을 만하다.

그러나 뱃사람들을 결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래서 자신이 선상을 주도하게 된 계기는 그의 서적과 지도를 통한 지식이었다. 처음 노화도 앞 바다에서 표류가 시작된 후 배는 남쪽으로 하염없이 떠내려갔고, 어느 순간

51)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표해록』 정월 11일조. “是夜, 余至堂村, 投入女家, 見窓外短牆下, 有一樹梅花, 山月已斜, 花影婆娑, 竚立花下, 以待梅月之出來. 是時, 夜已深, 群動寂然, 而惟有短狽吠余. 梅月聞犬吠, 呀然開門而出, 引余入室, 澗月在窓, 室中眈然. 而見趙女擁衾在床, 驚起而坐, 始而嚴辭峻拒, 若將不相容者. 及聞余懇懇說話, 眼波乍轉, 話岸漸低, 或含羞而露態, 或佯怒而強罵, 曰: ‘可殺哉! 梅月之賣我也.’ 及其昵枕頤頤, 神魂蕩漾, 而怒罵之聲已絕, 纏綿之情難禁, 陽臺雲雨之夢, 不足以喻其樂矣. (중략) 仍斂衽而向余曰: ‘妾之情勢, 郎何知之? 妾本長興人也, 母嫁于此島, 只與[擧]一子一女而早寡, 子即此島人趙起白也, 女即妾也. 妾亦命薄, 年十七而嫁, 嫁之翌年, 良人見背, 母憐我孀居, 每欲更求賢婿而不得奪志者, 久矣. 今聞郎子之言前日夢裡之逢事, 非偶然, 今夜枕上之歡, 天與其便, 以前生未了之緣, 辦今宵多情之會. 從今以往, 妾當矢死靡它, 百年苦樂, 惟郎子是仰, 不知郎子將何以處之乎?’ 余曰: ‘月老已結三生之緣, 星期僅借一會之便, 去天比翼, 在地連理, 豈非吾兩人之發願耶? 然而一別之後, 弱水便隔, 千里之外, 重逢無期, 此當奈何? 若欲馱爾而歸, 則爾無捨母之理; 若欲留我而居, 則我有懷土之愁, 此亦奈何? 若蒙仁天府佑, 使我早年決科作官南中, 則蓬島之約可踐, 瀟上之逢可期矣. 不然則隔鴛鴦於今世, 豈不悲乎? 會斗牛於來生, 是所願也.’ 女掩泣而對曰: ‘顧妾薄命, 不如無生. 妾之母倘, 多在陸地, 或爲長興府吏, 或作碧沙驛人. 妾當往托母倘, 以待郎子之決科矣. 顧此島中, 人煙杳隔, 魚鴈難憑, 何可終老於此中乎? 郎如不棄, 可因南風時惠德音也. 妾當以五年爲限而待之, 郎若過限不來, 則始可委質他門矣.’ 已而, 水村鷓唱, 東天向曙, 握手相別, 嗚咽不能語矣.”

망망대해에 접어들었다. 이때부터 장한철은 지도와 야화(野話)들을 동원하여 뱃사람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유인하는 방책으로 삼는다. ‘일찍이 지도를 보니,⁵²⁾ ‘야화(野話)로 앞서사람들이 적어놓은 책에 들어있다’⁵³⁾ 같은 멘트가 25일, 26일조에 빈번하다. 그는 또한 유구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는데, 이를 두고 뱃사람들이 유구를 몇 번이나 다녀왔기에 그렇게 잘 아느냐고 묻기까지 한다. 장한철은 유구에 대한 이해가 실제 경험이 아니라 서적을 통한 지식이란 점을 분명히 한다.⁵⁴⁾ 더 놀라운 점은 자신이 직접 ‘남해제국도(南海諸國圖)’란 지도를 제작한 사실이다.

나는 일찍이 여러 책을 널리 고구하여 ‘남해제국도’를 제작한 적이 있다. 대개 탐라의 한라산이 큰 바다 한가운데에 있어서 북쪽으로 조선과 연결돼 물길로 9백 80십여 리이다. 동서남 삼면은 바다만 있고 육지는 없어 아득하니 끝이 없다. 일본의 대마도는 한라의 동북쪽에 있고, 일기도는 정동쪽에 있으며, 여인국은 동남쪽에 있다. 한라의 정남쪽은 바로 대유구와 소유구이며, 서남쪽으로는 안남과 태국, 참파와 말레이 등의 나라가 있다. 정서쪽은 옛날 민(閩) 땅으로 지금의 복건성 가는 길이다. 복건 북쪽은 바로 서주(徐州)와 양주(揚州) 지역이다. 옛날 송나라가 고려와 왕래할 때 명주(明州)에서 배를 띄워 향해하였으니, 이 명주는 곧 양자강이남 땅이다. 청주(靑州)와 연주(兗州)는 한라의 서북쪽에 있다. 이상의 여러 나라는 탐라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거리가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 가장 먼 곳은 동해의 벽랑국으로 일본의 동쪽에 있고 거인국은 일기도의 동남쪽에 있는데, 사람의 발길이 통하지 않고 정교가 미치지 못하니 절로 세상과 떨어진 별세계이다. 옛날 탐라에 인물이 없었을 때 삼을라가 처음 강림하였으나

52) 『표해록』 12월 26일조. “余曰: ‘嘗閱地圖, 大小琉球, 在南方之外, 卽漢拏山之正南也.(후략)’”

53) 『표해록』 12월 25일조. “(전략) 此皆拾得於野話, 乃先人所紀之書也.”

54) 『표해록』 12월 26일조. “衆皆喜曰: ‘幾度來往於琉球而諳得琉球事如是之詳耶?’ 余曰: ‘見其書而知之矣.’”

아직 짝을 찾지 못하고 있자 벽랑국왕이 세 딸을 아내로 삼아 주었다. 이는 비록 황당한 설이지만, 송나라 천성(天聖) 기사년(1029) 탐라 사람 정일(眞一) 등이 거인도에 표류했다가 그 섬사람들에게 겁박을 받으며 붙잡혀 있다가 탈출해 살아 돌아온 이는 겨우 일곱 명이었다고 한 바, 이것이 동사(東史)에 실려 있다.⁵⁵⁾

여기 거론된 해양 지역과 나라들은 기실 이전의 자료에서 다양하게 언급 돼 왔던 것들이라 그리 새로워 보이진 않는다. 그럼에도 주목을 끄는 점은 이 동아시아 해양 권역의 지리가 탐라, 즉 한라산을 기준으로 비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육지인 조선도 대상 공간으로 자리한다. 확실히 장한철은 제주를 중심으로 한 해양 지역의 지도를 구성해 본 경험이 있었던 것 같다. 여러 도서들을 참고하여 제작했다고 하니 그럴 만하다. 이를 제주를 중심으로 구성해 본 것이다.⁵⁶⁾ 그런데 주변 공간들을 자신이 제작한 지도로 설명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구체적인 공간 자체가 불분명한 여인국이나 벽랑국, 거인도 등도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 지도에 이들 섬나라

55) 『표해록』 12월 26일조. “余嘗博攷群書, 著南海諸國圖矣. 蓋耽羅漢拏山在大海中, 惟北通朝鮮, 而水路爲九百八十餘里, 東西南三面, 則有海無地, 浩茫無邊. 日本之對馬島, 在漢拏之東北, 一岐島在正東, 女人國在東南. 漢拏之正南, 卽大小琉球也. 西南卽安南·暹羅·占城·滿刺加等國也. 正西卽古閩中, 今之福建路也. 福建之北, 卽徐揚州之域也. 昔宋之交通高麗也, 自明州發船浮海, 明州卽大江以南之地也. 青州·兗州, 在漢拏之西北. 以上諸國, 皆與耽羅隔海絕遠, 不知其相距爲幾千萬里, 而最遠者, 東海之璧浪國, 在日本之東, 巨人島在一岐之東南, 人跡不通, 政教不及, 自是隔世之別界也. 在昔耽羅無人物, 三乙始降, 未有配耦, 璧浪王妻之以三女云. 是雖荒唐之說, 昔在宋天聖己巳, 耽羅人貞一等, 漂到巨人島, 爲島人所劫留, 逃躲生還者, 纔七人, 此則在東史矣.”

56) 참고로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해역 중심의 지도는 17세기 무렵 처음 제작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른바 셸던의 지도가 그것이다. (티모시 브룩(조명헌·손고은 역), 『셸던의 중국지도』, 너머북스, 2018) 이 지도의 제작 주체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남양의 해역 무역 루트를 위해 제작된 것이다. 이 지도의 해역 공간이 여기 ‘남해제국도’와 상당 부분 겹친다.

가 배치되어 있는지도 궁금하다. 또한 삼을라와 벽랑국의 결연 전설도 소환하였다. 지식인 장한철은 이쪽에 대해서는 황당설로 보고는 있으나, 고려대에 탐라인 정일 일행이 대인국에서 생환한 사적을 끌어와 덧붙임으로써 유예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실제 이 지도가 있었다면 조선후기 지도사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거론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지도 제작 정보는 주목할 만하다.⁵⁷⁾

이런 제주 중심의 지리 인식은 사공 이창석과의 대화에서도 이어진다. 배가 남양(南洋)으로 떠내려 오자 바다도 잔잔하고 파도도 험하지 않았다. 이 점을 궁금해 하는 사공에게 장한철은 이렇게 설명한다.

천하의 지형은 중국의 경우 평원과 광야가 많고, 그 변두리에 높은 산과 큰 못이 많다네. 우리나라 산천은 흐르고 솟음이 몹시 급하여 5리마다 산이 하나 있고, 10리마다 강이 있을 정도네. 지맥은 백두산에서 흘러내려 조선의 땅을 형성하였는데, 그 여맥이 남으로 내려와 소안도, 추자도, 제주도 등이 되고, 동남의 한 갈래가 대마, 사츠마, 대판 등 일본 땅이 되었다네. 동래에서 일본, 남해에서 탐라까지 수천리가 되고, 큰 바다가 가로 막고 있지만 바다 밑은 천봉만학으로 이루어져 있지. 이 때문에 조선은 축급하고 뻣뻣한 산천이 된 것이라네. 그러니 바다 위에 풍파가 일어 배를 운항하기가 극히 위험하게 되는 것은 물 흐름의 충격으로 바다 밑의 봉우리와 골짜기에 진동하여 부딪치기 때문이라네. 대저 한라산 이남은 바다 밑이 평평하고 넓어서 더 이상 해저의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로 인해 격렬한 물결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물길이 위험하지 않다네.⁵⁸⁾

57) 물론 이런 제주 중심의 지도와 관련하여 제주목사 李衡祥(1653~1733)의 지시로 畫工 金南吉이 그린 『耽羅巡歷圖』의 제1폭 ‘漢孛壯矚’ 같은 사례가 있었다. 아마도 이런 그림이 이 지도 제작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강문중도 『표해록』 성립에 『탐라순력도』의 영향을 주목한 바 있다. (앞의 글)

58) 『표해록』 12월 30일조. “天下之地形, 中土則多平原曠野, 四裔則多高山大澤, 而其中我國, 山川流峙促急, 五里一山, 十里一水地脈矣. 自白頭山而關, 爲朝鮮之地, 朝

한반도의 산맥과 남쪽 바다 지역, 그에 따른 수세(水勢)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조선 땅의 남쪽 지역은 물론 일본 도서까지 포함하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지리 감각을 보여준다. 비록 해류의 문제로 수렴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육지의 시선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조망이다. 게다가 그 설명이 상당히 그럴 듯해 보인다. 이 말을 들은 사공은 자신의 경험으로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감탄하기까지 한다.⁵⁹⁾ 하지만 현재의 해양지질학에서는 이 현상을 바닷물의 온도나 판구조론 등으로 설명하기에 실제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과거 남해안과 제주, 그리고 제주 남쪽의 해양지리에 대한 장한철의 이해는 분명 독자적이다.

이런 그의 논리는 27일 밤에 남극노인성을 발견하고 그 이치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더 확장된다. 한라산에서만 볼 수 있다는 남극노인성은 이전에도 널리 회자된 볼거리 가운데 하나였다. 여기에 장한철은 제주 남쪽 바다 위에서 이 별을 볼 수 있는 이유를 천체의 구조로 설파한다. 남극성은 남쪽에 위치한 별이기에 북쪽에서는 관찰할 수 없고 제주 아래에서만 관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⁶⁰⁾

鮮之餘脈，南下而爲所安·楸子·耽羅等諸島，東南一派，爲對馬·薩摩·大阪等日本之地，自東來而距日本，自海南而距耽羅，其間雖隔之以數千里大海，海底之千峯萬壑，自是，朝鮮促密之山川。故海上風波極其危險者，以其水勢之衝擊，震搏於海底之峯壑也。若夫漢拏以南，則海底平行，無高山深壑之激波揚濤，故水勢不甚危險也。”

59) 『표해록』 12월 30일 조. “沙工曰：‘果然矣！聞此而吾亦有自覺者也。小的乘船，過耽羅海者多矣，自耽羅而發船，向北陸，舟到半洋，西指大小火脫之嶼，東望餘鼠·青山之島，則雖平風靜浪之時，水勢必洶湧滙濤，故過此者，皆危之。此則所謂水底峯壑激波之險也。今行過漢拏而南，則四望無一點島嶼，而水勢不甚險急，此則所謂水底平行，無激波峯壑之驗也。’”

60) 『표해록』 12월 27일 조. “余曰：‘君之惑滋甚矣。衡山爲中原之南岳，漢拏在朝鮮之南海，衡漢之所以見此星者，以其山在極南而然也，非以山之獨高於天下也。若以獨高而見此星，則天下之山，莫高於崑崙·太白，而未聞有登覽老人星者。蓋天之體，北極高而南極下；地之形，西北高而東南下，以崑崙之高，又在西北地高之上，則雖以衡山之高，亦在崑崙之地下。是故，登崑崙而視之，則南極之天入地而不見，衡山·漢拏，則皆在南極之地，故得見南極之星，況此衡漢以南之海中眼界，尤近於南極者

그런데 이 남극성을 천체의 원리로 설명하는 이 부분에 이본인 국립중앙도서관본에는 추가된 내용이 들어 있다. 김서일이 천체는 기운이 쌓여 형성된 것이어서 높고 낮은 형체가 있을 수 있느냐며 따지자, 장한철이 그 구조와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 부분이다.⁶¹⁾ 이 부분은 실제 장한철이 설명한 내용은 아니었던 듯싶다. 다른 누군가가 가필한 것으로 판단된다.⁶²⁾ 아마도 19세기 천체에 대해 더 구체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던 지식인의 가필이 아닌가 싶다.⁶³⁾ 어디까지가 장한철의 실제 지식이나는 점은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이 제주를 중심으로 한 그의 해양과 지리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분명 제주지식인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표해록』은 젊은 제주문인 장한철의 지적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결과물이었다.

한편 『표해록』은 장한철의 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그의 의식의 저변을 확인할 수 있는 적실한 자료이기도 하다. 이미 앞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으나 이 점을 마지막으로 좀 더 따져보기로 한다. 먼저 호산도에서 해적 및 안남상선과 접촉했을 때, 보인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인식이다. 임준을 향해서는

乎!” 국립제주박물관본에는 이 부분에서 누군가가 그의 지식을 두고, “비단 강해의 근원을 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체도 알고 있으니 평소 박식함을 알만 하다.[非但知得江海根派, 亦知天體, 居常博涉, 可知]”라고 감상평을 두주로 붙였다.

- 61) 국도본 『표해록』, “瑞一曰: “吾聞天者積氣耳, 蒼蒼非正色, 則非天之有形也, 而今言有高下之體, 何也?” 余曰: “南斗北斗, 天之樞紐, 而北斗出地三十六度, 南斗入地三十六度, 此所以爲天高下之形也. 且夫氣者, 未始有形而亦未始無形也. 故山之氣, 積而爲雲, 火之氣, 積而爲烟, 見山之雲火之烟, 而無其形, 可乎哉? 我且告子乎方圓之形, 天包水, 水包地, 天則四極相距, 各爲二億三萬三千五百里七十五步, 而圓之形成焉; 地則經短緯長, 經爲二萬六千里, 緯爲二萬八千里, 而方之形成焉. 由是觀之, 地之浮於天水之間者, 譬如彈丸黑子也. 吾與子, 蟬蛻彈丸之壤, 浮沈天海之間, 玩天地倚付之形, 吸日日出納之光, 所謂吞雲夢八九者, 何足以喻其大也?” 瑞一洒然稱服矣.”
- 62) 참고로 친필본과 이 이본과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작품의 첫머리와 이 부분을 포함한 한두 군데에서만 차이가 난다.
- 63) 따라서 지금 장한철의 천체에 대한 지식과 18세기 후반 조선지식계에서의 이해의 거리를 따져보는 것도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재조지은’의 은혜를 설파하면서⁶⁴⁾ 중국과 조선의 선린우호를 적극적으로 개진한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슬프다! 왜놈들은 우리의 원수다. 뜻으로 보면 하늘을 같이 일 수 없다. ‘한강에 다다라 강 위를 보노라면, 두 능의 소나무와 잣나무 가지조차 나지 않았네.’라는 시를 읊조릴 때면 나는 절로 소리치고 피눈물을 흘렸다. 저 왜놈들! 목을 벨 수 있다면 천 번이라도 칼을 들 것이고, 활로 쏠 수 있다면 만 번이라도 활을 당기리라! 대개 하늘이 만물을 창조함에 모두 사람들에게 이로우미 있는 법이다. 비록 태산 호랑이가 포악하나 그 가죽을 깔고 자면 내 몸이 편안하고, 영주(永州)의 뱀이 독하나 약으로 쓰면 내 병이 나올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오직 저 한 종자 왜놈은 사람들에게 할 올의 이로우미도 없고, 해로움은 태산 호랑이와 영주 뱀보다 더 심하다. 하늘은 어찌 이놈들을 태어나게 했을까, 어찌 이놈들을 만들어냈을까. 당장이라도 천제에게 죄를 내리도록 하고 싶으나 그럴 수 없구나!⁶⁵⁾

『표해록』의 내용 중에 가장 격양된 부분으로, 장한철에게 왜는 그야말로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는 원수다. 임진왜란을 떠올리며 치를 떠는가 하면, 윤안성(尹安性, 1542~1615)의 시구⁶⁶⁾를 인용하여 왜란 이후에도 저들이 우

64) 『표해록』 정월 2일조. “余知其人之爲明人也, 不覺涕泣而書曰: ‘吾屬亦是皇明赤子也. 壬辰倭寇, 陷我朝鮮, 魚肉我, 塗炭我, 其能拯我於水火之中, 措我於衽席之上者, 豈非我皇明再造藩邦之恩耶? 噫嘻痛哉! 甲申三月, 天崩之變, 尙忍言哉? 以我東忠臣義士之心, 孰欲戴一天而生也, 孰不欲蹈東海而死也? 然而父母之亡, 孝子不能殉從者, 以其天命不同, 存亡有異也.’”

65) 『표해록』 정월 1일조. “○噫! 倭奴我讐也, 義不可共戴天. 而每吟‘試到漢江江上望, 二陵松柏不生枝’之詩, 不覺吼我膽而泣我血. 倭乎倭乎! 如可斬兮人千其劔, 如可射兮人萬其弩. 夫天之生物也, 俱有益於人, 雖以泰虎之惡焉, 而寢其皮, 則可以安吾軀; 永蛇之毒焉, 而用爲餌, 則可以已吾疾, 而惟彼一種倭奴, 則於人無一毛之利, 而其爲害也, 有其甚泰虎永蛇. 天胡生此? 天胡生此? 直欲罪眞宰, 而不可得也.”

66) 이 시구는 윤안성의 「聞回答使發行」(『冥觀遺稿集』 권1)의 3,4구이다. 1606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화해의 취지로 선정릉을 도굴한 범인을 압송해 왔는데, 이를 조

리를 기만한 것에 분개한다. 뿐만 아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태산의 호랑이와 영주(永州)의 뱀을 끌어와 ‘한 올도 이로움이 없는’ 이런 종자를 하늘은 왜 가만두지 않느냐면 한탄한다. 이 과도해 보이는 왜에 대한 적개심은 재조지은을 강조하며 무한한 애정으로 대하는 중국에 대한 이해와는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물론 이 발화가 남해불에게 약탈을 당하고 난 뒤였고, 한편으로는 임준 일행에게 구조되기를 바랐던 절박한 사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각각 상황논리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그의 외부에 대한 의식세계를 짐작하는데 이 반응은 상징적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장한철의 지적 역량과 그의 대내외적인 의식세계를 보여주는 것들이기는 하나, 다분히 의식적인 발화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저 중국과 일본에 대한 견해는 장한철 자신의 정체성일 일수도 있지만 중앙-정계 따위-을 향해 웅변하는 제스처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역량과 정치적 견해를 어필하는 의도가 읽혀지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실제 이 저작이 중앙정계에서 활용된 사례가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이래저래 장한철은 이 표류를 통해서 다양한 국면과 맞닥뜨렸고, 해당 사건들을 통해 자신의 의식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따라서 『표해록』은 장한철을 드러내는 가장 유용한 도구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장한철의 『표해록』은 하위-벧사람들-와 외부세계를 통해 불가명(不可名)의 상위에 대한 인정투쟁의 산물이라 할 만하다. 여기에 18세기 후반 한 제주 문인의 현실, 그 고뇌와 원망(願望)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18세기 후반 제주 지식인이 가졌던 정체성 가운데 하나로 봐도 무방하겠다. 공교롭게도 육지인 누군가에 의해 전사된 것으로 판단되는 국도본 첫머리는 친필본에 없는 제주와 제주 문사의 현실이 스케치되어 있다. 이 부분을 인용해두면서 향후 이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

정에서 받아들여 화답사를 보내게 되었다. 윤안성은 이것이 저들의 기만행위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에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한다. 참고로 앞 1,2구는 다음과 같다.
‘使名回答向何之? 此日交鄰我未知.’

기를 기대해 본다.

탐라의 한라산은 바로 전겁의 영주이다. 그 웅장하고 기이한 경관은 세상 밖으로 높이 솟아 있다. 위로는 은하수를 잡을 수 있고, 아래로는 푸른 바다를 압도한다. 「우공(禹貢)」에도 올라있지 않고 진나라의 교화도 미치지 않았다. 삼성(三姓)이 나라를 열지 않았다면 어찌 일엽편주로라도 세상과 통했으랴! 어지러운 때는 세상의 병화를 피해 온 자들의 거처가 되었고, 다스려질 때는 천리 길 푸른 파도를 건너 육로로 9백 리를 달려 서울에서 벼슬자리를 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종종 바다에 표류하거나 길에서 죽어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그러니 이곳은 바로 난리 때는 낙원이지만 치세 때는 모진 땅인 것이다. 나는 태평성대에 불행하게도 여기에서 태어나 뛰어나고 호방한 선비들과도 함께 하지 못하고 었드린 채 뛰쳐나오지 못했다. 고기 잡고 뿔나무하는 무리들 사이에 빠져서 마시며 즐기면서도 적이 오나라 계찰(季札)이 상국(즉 노나라)의 소(韶)를 들은 일을 그리워한지 오래되었다. 나라에서 특별히 멀고 외진 사람이 과거보기가 어려움을 안타까워하여, 개성(開城)의 예처럼 승보 초시를 배설해 주었다.⁶⁷⁾

67) 국도본 『표해록』 첫머리. “耽羅之漢拏山, 卽前劫之瀛洲也. 磅礴奇環, 高出世外, 上挹星漢, 下壓滄溟. 禹貢之所未奠, 秦烟之所未通, 如無三姓之開國, 豈有一輩之通世? 在亂時, 則逃世避兵者之所盤旋; 在治世, 則涉滄波千里, 陸走九百有餘里, 以求科宦于京師, 而往往有漂于海殞于道而不返者. 是固亂時之樂土, 治世之惡地也. 余於治平聖代, 不幸而生于茲, 不能與賢豪之士, 伏以不出者, 酣嬉顛倒於漁樵之間, 竊慕吳季子之間韶上國者, 厥惟久矣. 國家特軫遠人赴試之難, 設陞補初試於島中, 如開城府之例.”

■ 참고문헌

□ 자료

『일성록』

『승정원일기』

睦萬重, 『餘窩集』(『한국문집총간』 속90)

俞晚柱, 『欽英』(규장각소장본)

尹安性, 『冥觀遺稿集』(『한국문집총간』 속5)

李玄綺, 『綺里叢話』(임형택소장본)

張漢喆, 『漂海錄』(국립제주박물관 소장본 및 국립중앙도서관본)

『耽羅志』(동경대소장본)

김영돈 외, 『제주설화집성(1)』, 탐라문화연구원, 1985.

장한철, 김지홍 역, 『표해록』, 지만지클래식, 2009.

이석범, 『제주전설집2』, 제주문화원, 2012.

정병욱, 『표해록』, 『인문과학』 6집,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1961.

진성기 편저,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68.

티모시 브룩, 조명현·손고은 역, 『셀턴의 중국지도』, 너머북스, 2018.

□ 논저

강문중, 「장한철 <표해록>의 텍스트 형성 동인 연구」, 『해양도시문화교섭학』 23집,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0, 37~60쪽.(DOI: 10.35158/cisspc.2020.10.23.37)

- 김경옥, 「18세기 장한철의 『표해록』을 통해 본 해외체험」, 『역사학연구』 48집, 호남사학회, 2012, 151~173쪽.(UCI: G704-001257.2012..48.007)
- 김미선, 「<표해록>으로 본 18세기 제주도선비 장한철과 섬사람들」, 『동양학』 78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20, 1~20쪽.(DOI: 10.17320/orient.2020..78.1)
- 김새미오, 「일재 변경봉 문집」에 나타난 18~19세기의 제주사회 성격에 관한 일고-유교사회로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20집, 영주어문학회, 2010, 93~118쪽.(UCI: G704-SER000010594.2010.20..011)
- 서인석, 「장한철의 『표해록』과 수필의 서사적 성격」, 『국어교육』 67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9, 143~160쪽.(UCI: 1410-ECN-0102-2008-710-000495928)
- 안대회, 「여와 목만중의 표류인 전기 「김복수전」 연구」, 『한국문화』 37집,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4, 61~84쪽.(UCI: G704-001253.2014..68.003; DOI: 10.22943/han.2014..68.003)
- 윤치부, 「장한철의 <표해록>과 한문단편의 관련 양상」, 『고소설연구』 2집, 한국고소설학회, 1996, 341~382쪽.(UCI: 1410-ECN-0102-2009-810-009248837)
- 정솔미, 「장한철 『표해록』의 야담적 전이양상-『기리총화』와 『청구야담』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7호, 민족문학사학회, 2018, 241~279쪽.(UCI: 1410-ECN-0102-2018-800-003747536)
- 정환국, 「동아시아 漂流敍事 서설」, 『대동문화연구』 100집, 대동문화연구원, 2017, 295~320쪽.(DOI: 10.18219/ddmh..100.201712.295)
- _____, 「조작되는 하위/하위주체들-황재 소재 표류서사의 변이양상과 하위주체의 성격」, 『민족문학사연구』 68호, 민족문학사학회, 2018, 131~158쪽.(UCI: 1410-ECN-0102-2019-800-001643702)
- 조성윤, 「조선후기 제주도 지방의 신분구조」, 『사회와 역사』 27집, 한국사회사학회, 1991, 178~222쪽.
- 홍진옥, 「유구 세자 살해설과 김려의 <유구왕세자외전>」, 『대동한문학』 47집, 대동한문학회, 2016, 121~169쪽.(UCI: G704-001498.2016.47.47.007)
- 후지타 아키요시(藤田 明良), 「17世紀初頭の濟州島地方官による「荒唐船」攻撃事

件と島津氏の安南通交-『増補耽羅誌』にみる琉球王子殺害事件の實相」
(천리대 조선학회 2019년 발표집).

|| Abstract

**The identity of the 18th-century literati in Jeju Island:
Jang Han-cheol's travel record *Pyohaerok* (漂海錄)**

Jung, Hwan-Kuk

This article examines the identity of the 18th-century literati in Jeju Island by analyzing Jang Han-cheol's travel record *Pyohaerok* (漂海錄). Despite how unique of a place that the literature of Jeju Island occupies in the history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studies often express a land-oriented perspective that otherizes the Jeju literature. This trend prevents any opportunity to properly approach to the subject itself. In order to derive more accurate analysis, the records of native Jeju scholars and their own perspective need to be examined thoroughly. Thus, *Pyohaerok* has been selected in this study to identify the native scholar's thoughts and viewpoint. One of the many distinct features of *Pyohaerok* is that the writer's voice of the inner world is expressed in harmony with his reaction to the outer world. In this regard, how the piece had been used to disclose the capacity of scholars in Jeju is identified based on analyzing Jang's life and the circumstances *Pyohaerok* being read at the government authorities. Secondly, the aspects of conflicts on board and the contacts with the outside world are also analyzed in this study. It is derived that Jang had improved the understanding of the 'Jeju people' and the 'sailors' through the conflicts in the drifting ship. He had made a connection to the outer world by encountering with the pirates and merchant ships as well. In those particular situations, he would project his identity as a Confucian scholar into the circumstances. Lastly, a feature that distinguishes Jang from

other ordinary scholars is discovered by analyzing his knowledge in the usage of various records and maps. In conclusion, *Pyohaerok* reveals the identity and self awareness of Jang Han-cheol, a Jeju scholar ambiguously positioned in the hierarchy of the Joseon Dynasty.

Keyword ● Jang Han-cheol (張漢喆), *Pyohaerok* (漂海錄), Drifting experience, Jeju Island and the people, Jeju scholars, Identity

■ 논문투고일 : 2021. 3. 15 ■ 심사완료일 : 2021. 4. 13 ■ 게재확정일 : 2021. 4. 14

